

091921 주일설교 “복된 길” 시편(Psalm) 1:1-6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성 카타리나’ 섬이 있습니다. 쾌속정으로 한 시간 정도 가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라고 해요. 1952년 7월 4일 여성 수영선수인 플로렌스 채드윅 (Florence Chadwick)은 수영으로 해안에서 이 섬까지 가려고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미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횡단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강도 높은 훈련을 해서 해안에서 섬까지 횡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날따라 바다에는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과 거친 파도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게 안개뿐인 바다를 15시간 55분 동안 수영하였지만 결국 포기해 버리고 말았어요. 안개로 앞을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포기한 지점은 목적지에서 불과 800미터 앞이었습니다. 수영을 포기한 다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포기 당시 도착 예정이던 해안에 매우 근접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목표 지점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해안만 보였더라도 끝까지 해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요, 골목길에 자동차 방지턱을 만나게 되요. 그 방지턱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해요. 방지턱을 운전하는데 방해물 혹은 걸림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것을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한 10%는 어떤 일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지만, 나머지 90%는 그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파생된 여러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앞이 망막하십니까? 오늘 시편 1편은 복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참된 신앙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찾는 복있는 사람이 되시길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은 의인의 삶과 복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4절에서 6절은 악인의 삶과 그 허무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견고하구요 때에 따라 열매맺음이 있듯이 생명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삶은 특별히 겨울에 비유했는데요, 겨울 결으로 보기에는 알곡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하지만 비로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티가 납니다. 그 안에 알곡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쉽게 날아가 버려요. 그 열매 없음이 결국 생명 없음 혹은 허무함이라고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의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하죠! 우리는 의롭다라는 것을 소유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를 생각하지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했고,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고, 단기선교도 남보다 몇번을 더 갔다왔는지를 헤아려 봅니다. 그것을 따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나보다 나쁜 사람들을 자주 찾게되요. ‘나는 그들에 비해 이정도 품위를 유지하고 있으니깐 괜찮다, 그러니까 이정도면 의인’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 혼자 힘과 결단력으로 모든 것을 이뤄낸 것처럼 생각하니깐, 교만해지기 쉽죠. 나아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아냐면,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요.

제가 목사로서 소명 받은 것에 대해선 다음 번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시작했던 것 2가지가 있는데 성경책을 아주 열심히 읽는 것과, 새벽기도를 비롯한 모든 공적 예배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잠언을 선택했으면, 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구요, 밑줄을 치고, 하이라잇을 하고, 메모를 해가며 열심히 읽었습니다. 새벽기도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는데 고3때는 학교에서 밤1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와서도 4시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회는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금요찬양기도회 때는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장로님보다 항상 더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다리에 쥐가 나도 참고 기도하는 것이 부듯하구요 삶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만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점점 제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정도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습게 보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동안, 하나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소명에 대한 부분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의로움’에 대해서 소유적인 측면으로 말하지 않아요! 의로움을 언제나 소유가 아닌 관계의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의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부리를 내리고 지금도!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 지금도!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 다시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현재형으로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나중에 죽으면 심기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했어요.

결국, 오늘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말씀!!” 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고백과 같이 전하는 사람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만 흥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보단 사람을 믿으려고 해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죠.)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아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줄만 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을 읽었다” “하루에 몇십장을 읽었으니 됐다. 읽었으니 내 깨다” 소유의 측면에서 읽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나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지를 생각하며 읽는 겁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교회 파송이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도 어렵고, 사람들도 교회에 오지 않는데, 사역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까요?” 저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시기에 있어도, 내 삶은 여전히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있어야 하구요, 은혜의 강  
줄기에서 매일 매일 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함 없이 하루에 한 걸음씩, 오랜 시간 인내하며 형성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복있는 사람은 나무처럼 견고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그 말  
씀에 워낙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순간 낙심은 할 수 있을 지언정, 그 생  
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곧 마음을 주스리고 언제나 열매 맺는 삶을 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형통한 삶**”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들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잘 풀리  
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자체를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형  
통에 대해서도 나중에 성경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삶의 결국은 형통한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  
지 아니하며.”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고.” 여러분, 누구나 길을 걷다 보면요, 멈추고 싶어져요. 서있다보면 앉고 싶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세 종류의 악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겁니다. “악인” 이 따로 있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고 했습니다. 악한 길로 오래 걷다보면, 그 길에 멈추고 싶어져요. 그리고는 그 길에 안주하며 자리를  
잡게되는 거라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에서 발견하고, 우리 모두 영적으로 주의하면  
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오늘 코로라19라는 상황과 같이 힘빠지고, 김빠지고, 초조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학업이 내맘대로 안될수도 있어요. 사업이 꼬여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와같은 때에도 여러분은 시  
냇가에 심겨진 나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게 그 말씀의 꿀을, 생명을 오늘도

공급받아 살아가고, 매일 매일 공급받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맺는 삶이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 라는 제목의 짧은 시를 읽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적합한 시인 것 같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들어 보시지요.

주라고 하신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내가

뭘 주라고 하시냐고 묻자

고운 말 한 마디.

따뜻한 눈 빛.

다정한 표정

넉넉한 품이 있지 않느냐고 하시니

다시 보니

내가 큰 부자랄세.

여러분, 어떠십니까? 듣고보니 여러분도 큰 부자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고 오늘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시길 바랍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은 어느 특정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을 두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나 하고 싶은 데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라는 안개가 아직도 자욱해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길되신 예수님을 매일 매일 따라가면 결단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오히려 지금의 시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